



이슈리포트

2012년 2분기 수출기업체감지수와 수출기업 애로사항

이재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 | | |
|------------------------|--------------------------------------|
| I. 수출기업체감지수 | II. 2012년 2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 1.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 2. 2012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요약

1.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5)보다 상승한 99 기록
- 업황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여 업황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원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전기(91)보다 상승한 99를 기록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9)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3을 기록하였으나, 유로존 사태 악화, 중국 및 미국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조선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전기와 동일한 97을 기록, 6분기 연속 기준치 100 이하로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2012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99로 전기(112)보다 하락
 - 수출기업은 유로존 위기의 확대, 미국 및 중국의 경기둔화 양상 등으로 3분기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99로 2분기(106)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2로 전기(118)보다 크게 하락하여, 기업들은 최근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지속되어 수출물량 증가세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출기업 업황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81%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69%)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인 세계경기 악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가격경쟁력 하락은 25%, 업체간 경쟁심화가 18%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플랜트, 섬유, 조선 업체의 경우 수출대상국의 경기악화 이외에도 30% 이상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화환율 불안정과 개도국의 저가 공세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56%),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7%)를 꼽고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의 경우 최근 가격 하락세로 좀 나아지기는 했으나 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5)보다 상승한 99 기록

- 업황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여 업황 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과 수출물량이 전기 대비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반적인 업황평가가 전기 대비 상승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원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전기(91)보다 상승한 99를 기록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17)보다 하락한 111을 기록하여 원가부담이 감소하고,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100에서 102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됨.
 - 2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전기 대비 상승하여 수출단가(원화기준)가 소폭 상승한 반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등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폭이 축소됨.
 - ※ 원/달러환율(기간 평균) :
1,084('11년 3/4) → 1,145(4/4) → 1,131('12년 1/4) → 1,152(4월~6월25일)
 - ※ 두바이 유가(기간 평균, \$/배럴)
116.2('12년 2월) → 122.5(3월) → 117.4(4월) → 107.3(5월) → 95.3(6월 1~22일)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9)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3을 기록하였으나, 유로존 사태 악화, 중국 및 미국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조선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전기와 동일한 97을 기록, 6분기 연속 기준치 100 이하로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1>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117	109	102	98	102	97	92	95	9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113	103	94	89	97	89	94	91	99
수출단가 평가지수	112	103	100	109	104	97	99	100	102
생산원가 평가지수	119	115	116	134	123	119	111	117	111
수출물량 평가지수	122	112	104	104	110	101	95	99	103
수출계약 평가지수	122	112	105	103	110	102	94	99	102
자금사정 평가지수	108	106	102	96	99	94	94	94	97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업황은 개선된 반면, 대기업은 소폭 하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는 각각 98, 100으로 전기(대기업 102 중소기업 93) 대비 중소기업은 상승했으나 대기업은 하락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 99 중소기업 100을 기록 중소기업의 개선폭이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 102 중소기업 103을 기록, 전기(대기업105, 중소기업 97)보다 중소기업의 수출물량 증가율이 개선된 반면, 대기업은 개선폭이 소폭 감소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98, 중소기업 97을 기록, 전기(98, 93) 대비 중소기업은 개선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섬유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기준치 이하

- 섬유산업,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산업의 경우 전기보다 개선된 반면, 나머지 산업은 전기 대비 악화됨.
 - 석유화학은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경제 둔화로 업황이 악화되었고, 조선산업의 조선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경우 77로 전기(93)보다 크게 하락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지수는 조선과 플랜트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산업에 걸쳐 채산성이 개선되었으나, 조선산업의 경우 경기침체 수준이 심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전자, 플랜트, 섬유, 기계류 산업이 전기 대비 개선됨.
 -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중국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수출물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산업의 경우 전기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아직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음.

<표 2>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2012 1/4	2012 2/4	2012 1/4	2012 2/4	2012 1/4	2012 2/4	2012 1/4	2012 2/4
규모별	대 기 업	102	98	94	99	105	102	98	98
	중 소 기 업	93	100	90	100	97	103	93	97
업종별	석 유 화 학	101	91	84	93	100	99	94	98
	철강 및 비철금속	96	100	95	97	103	101	98	96
	전 기 · 전 자	89	100	90	103	94	104	89	97
	기 계 류	95	100	93	100	100	104	100	101
	자동차(부품 포함)	98	96	93	105	103	103	97	101
	조 선	93	77	79	73	82	81	79	85
	섬 유	101	107	103	105	99	108	93	96
	플 랜 트	100	100	86	80	100	110	93	90
지역별	미 국	103	107	96	108	106	114	97	103
	중 국	93	96	89	89	96	96	90	93
	일 본	95	99	99	101	106	104	96	95
	유 로 지 역	91	94	89	96	99	91	96	88
	동 남 아	92	96	85	101	86	99	94	102
	중 남 미	78	100	83	106	78	115	94	106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미국과 중남미 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중남미가 100으로 전기(78)보다 개선되었으며, 미국이 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7을 기록함.
 - 나머지 지역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음.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남미, 동남아 지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미국, 중남미 지역은 개선되었으나 유럽 및 일본 지역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2. 2012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99로 전기(112)보다 하락
 - 수출기업은 유로존 위기의 확대, 미국 및 중국의 경기둔화 양상 등으로 3분기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99로 2분기(106)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1				2012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전망지수	123	117	113	106	116	108	102	99	112	99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8	111	106	101	107	105	100	101	106	99
수출단가 전망지수	100	105	102	102	109	102	99	99	102	100
생산원가 전망지수	110	110	109	112	125	111	108	110	112	104
수출물량 전망지수	129	121	114	110	124	116	107	101	118	102
수출계약 전망지수	129	121	113	109	123	116	106	102	118	101
자금사정 전망지수	111	110	106	101	106	106	100	98	102	100



-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원화는 다시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2로 전기(118)보다 크게 하락하여, 기업들은 최근 세계 경기의 둔화세가 지속되어 수출물량 증가세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100을 기록 전기(102)보다 하락, 자금사정도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규모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96, 101를 기록, 대기업의 전망 악화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역시 대기업이 100을 기록, 99를 기록한 중소기업보다 전기(110, 104) 대비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101, 중소기업이 102를 기록, 대기업 전기 대비 수출물량 증가폭의 하락이 중소기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101 중소기업이 100을 기록, 전기(108, 100)보다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플랜트, 조선 산업에서 크게 악화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자동차,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플랜트 산업이 29포인트 크게 하락하였으며, 기계류, 자동차 산업도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전기·전자 산업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나머지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임.
- 수출지역별로는 유로지역과 중국의 업황전망이 크게 하락
- 유로지역과 중국 업황전망 지수가 각각 24, 15포인트 하락했으며, 미국도 9포인트 하락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동남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기 대비 악화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중남미, 유로존 지역이 각각 34, 20 포인트 하락해 해당지역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큼.

<표 4>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구 분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12 2/4	2012 3/4	2012 2/4	2012 3/4	2012 2/4	2012 3/4	2012 2/4	2012 3/4
규모별	대 기 업	120	96	110	100	122	101	108	101
	중 소 기 업	109	101	104	99	116	102	100	100
업종별	석 유 화 학	109	99	102	96	118	100	99	100
	철강및비철금속	107	96	104	95	114	95	105	100
	전 기 · 전 자	112	107	108	104	118	107	100	104
	기 계 류	112	101	108	99	121	102	106	103
	자동차(부품 포함)	111	88	104	93	113	96	106	93
	조 선	100	69	82	88	104	88	86	85
	섬 유	119	101	113	105	126	112	99	95
	플 랜 트	143	110	100	110	129	100	114	110
지역별	미 국	112	103	107	103	119	105	102	100
	중 국	115	100	106	98	117	100	105	103
	일 본	103	102	102	94	115	107	92	100
	유 로 지 역	115	91	109	96	119	99	105	99
	동 남 아	106	99	99	102	110	102	108	102
	중 남 미	106	91	100	94	122	88	111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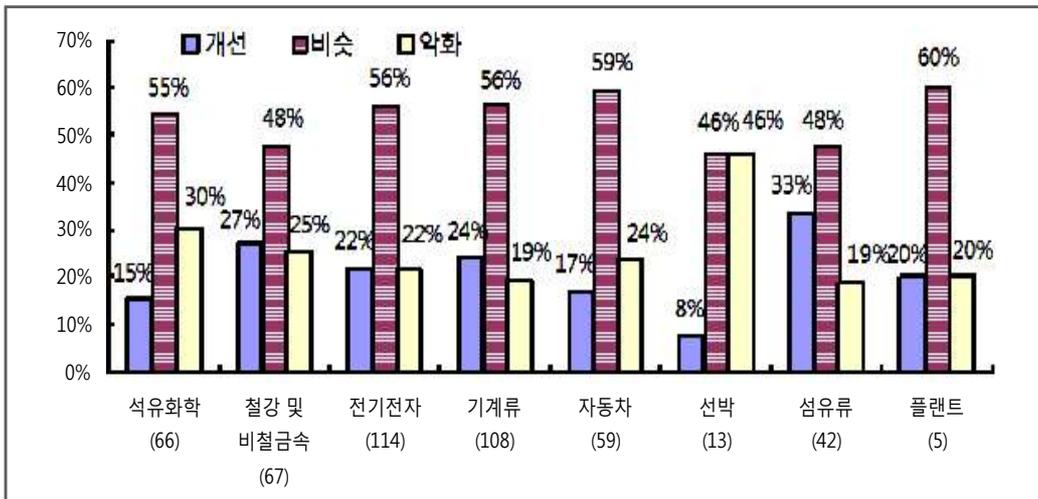
Ⅱ 2012년 2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악화 원인과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2분기 중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다수

-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3.5%, 악화되었다는 기업은 23.0%로 나타남.
 - 전기(개선 19.0%, 악화 25.6%)보다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다소 축소됨.
 - 53.5%는 수출업황이 2012년 1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함.
- 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개선된 업체가 22.3%로 악화된 업체(23.8%)보다 적은 반면, 중소기업은 22.7%가 악화된 반면 개선된 업체(23.9%)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산업분류별로는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의 경우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 기계류, 섬유 산업의 경우 개선된 기업의 비중이 악화된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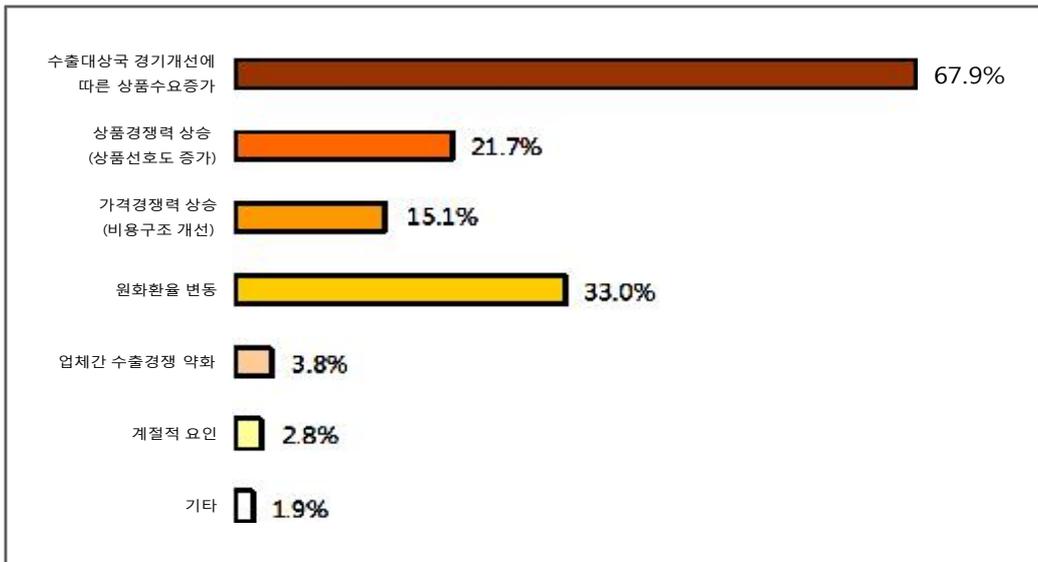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 **업황 개선 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가장 큰 개선요인으로 응답**
 - 수출업황 개선기업 중 68%는 업황개선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로 답하고 있으며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업황 개선을 답한 기업도 33%에 이릅니다.
 - 다음으로 상품경쟁력 상승과 가격경쟁력 상승이 각각 22%, 15%를 차지
 - 산업별로는 석유화학와 기계류 업체의 경우 상품경쟁력 상승을 업황개선의 요인으로 각각 40%, 35%의 기업이 답함.
 - 업황이 개선된 플랜트와 자동차 업체의 경우 각각 100%, 50%의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업황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답함.
 -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에서 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이외에 원화환율 변동과 가격경쟁력의 상승을 주요한 업황개선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그림 2>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는 106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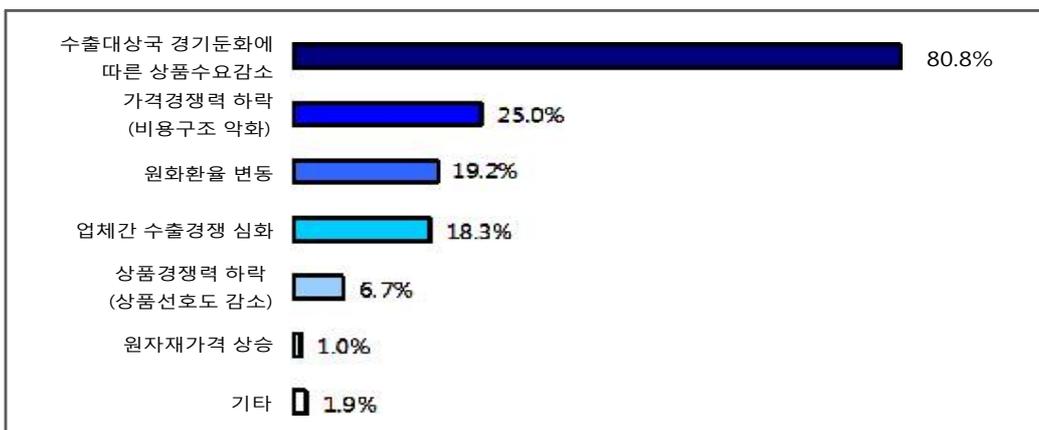
<표 5>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구 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계절적 요인
규모별	대 기 업	13.8%	17.2%	72.4%	3.4%	27.6%	3.4%
	중 소 기 업	24.7%	14.3%	66.2%	3.9%	35.1%	2.6%
업종별	석 유 화 학	40.0%	30.0%	50.0%	0.0%	40.0%	0.0%
	철강 및 비철금속	0.0%	22.2%	72.2%	0.0%	27.8%	5.6%
	전 기 · 전 자	24.0%	12.0%	72.0%	0.0%	32.0%	4.0%
	기 계 류	34.6%	15.4%	80.8%	3.8%	30.8%	0.0%
	자동차(부품 포함)	10.0%	0.0%	70.0%	0.0%	50.0%	0.0%
	조 선	0.0%	0.0%	100.0%	100.0%	0.0%	0.0%
	섬 유	21.4%	7.1%	50.0%	14.3%	21.4%	7.1%
	플 랜 트	0.0%	0.0%	0.0%	0.0%	100.0%	0.0%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81%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69%)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인 세계경기 악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업황악화 기업 수는 104개임.



<표 6>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규모별	대 기 업	6.5%	25.8%	80.6%	16.1%	29.0%	0.0%
	중 소 기 업	6.8%	24.7%	80.8%	19.2%	15.1%	1.4%
업종별	석 유 화 학	10.0%	15.0%	85.0%	5.0%	35.0%	0.0%
	철강 및 비철금속	0.0%	29.4%	82.4%	11.8%	23.5%	5.9%
	전 기 · 전 자	12.0%	24.0%	72.0%	24.0%	20.0%	0.0%
	기 계 류	4.8%	14.3%	90.5%	14.3%	9.5%	0.0%
	자동차(부품 포함)	7.1%	21.4%	64.3%	21.4%	28.6%	0.0%
	조 선	0.0%	33.3%	100.0%	16.7%	0.0%	0.0%
	섬 유	0.0%	50.0%	87.5%	37.5%	0.0%	0.0%
	플 랜 트	0.0%	10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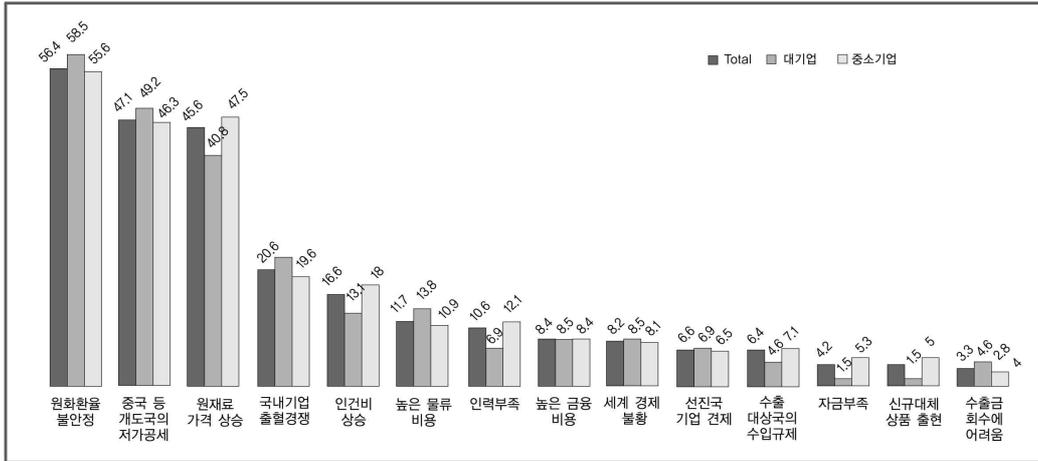
- 가격경쟁력 하락은 25%, 업체간 경쟁심화가 18%를 차지하고 있음. 원화 환율의 상승으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도 19%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플랜트, 섬유, 조선 업체의 경우 수출대상국의 경기악화 이외에도 30% 이상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 석유화학, 자동차 업체들은 각각 35%, 29%가 원화환율 변동을 업황악화 요인으로 답해 환율변동에 대한 부담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화환율 불안정과 개도국의 저가 공세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56%),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47%)를 꼽고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의 경우 최근 가격 하락세로 좀 낮아지기는 했으나 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인력부족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2012년 2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 조선 및 플랜트 산업 기업의 경우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간 출혈 경쟁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조선산업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도 큰 애로사항은 것으로 나타남.
 - 섬유업체는 지속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높은 운송비용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표 7> 2012년 2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구분	석유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56.1%	56.7%	52.6%	58.3%	71.2%	38.5%	52.4%	60.0%
원재료 가격 상승	56.1%	37.3%	47.4%	42.6%	42.4%	23.1%	40.5%	60.0%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40.9%	53.7%	49.1%	48.1%	44.1%	69.2%	40.5%	40.0%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5.2%	28.4%	15.8%	22.2%	15.3%	46.2%	16.7%	40.0%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고관세)	4.5%	6.0%	6.1%	9.3%	8.5%	0.0%	2.4%	0.0%
선진국기업의 견제	1.5%	10.4%	6.1%	8.3%	6.8%	7.7%	7.1%	0.0%
신규 대체상품 출현	4.5%	1.5%	7.9%	3.7%	0.0%	0.0%	4.8%	0.0%
인력부족	6.1%	9.0%	8.8%	11.1%	11.9%	23.1%	14.3%	20.0%
인건비 상승	10.6%	14.9%	14.9%	17.6%	15.3%	7.7%	23.8%	60.0%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1.5%	3.0%	4.4%	3.7%	1.7%	0.0%	4.8%	0.0%
높은 물류비용	13.6%	13.4%	7.0%	12.0%	16.9%	0.0%	14.3%	0.0%
높은 금융비용	6.1%	10.4%	13.2%	2.8%	16.9%	7.7%	2.4%	0.0%
자금부족	3.0%	3.0%	5.3%	0.9%	1.7%	23.1%	4.8%	20.0%
수출 대상국 경기 둔화	9.1%	7.5%	6.1%	12.0%	8.5%	7.7%	9.5%	0.0%